

# 저성장시대 벤처의 길

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 연구위원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는 약 7%대로 고도성장해왔으나, 향후 10년간에는 5%대 그리고 그 이후 10년은 4%대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성장시대의 원론적 의미는 경제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른바 한국형 발전모델이라 불리는 과거의 고도성장은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고 이를 대기업에 선별해 배분함으로써 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의 한계는 외환위기에서 이미 드러났으며, 더욱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창의성과 혁신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와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물러간 자리를 시장이 대신할 것이다. 시장은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이 경쟁하는 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성장의 내용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질적인 변화를 고려한다면, 비록 저성장시대로 들어가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능력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경제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다.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지식의 프론티어에 도전하는 과학적 연구 및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는 연구개발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곧 벤처 활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기업가를 필요로 한다. 벤처기업인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역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벤처기업인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낸다.